

[기획]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 속으로

(11) 가수 예민의 '분교 음악회'

■ 가수 예민의 또다른 실험

박물관과 음악의 만남 '뮤뮤스쿨'

외딴 섬·산골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 잔치'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구요(종려) 어느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사람들은 가수 예민의 이름은 잘 몰라도 그가 불렀던 노래에는 익숙하다. 담백한 무공예 목소리와 가사들이 인상적인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아에이오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곡들이다.

예민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외딴 산골 마을, 섬마을 분교를 찾아가며 순박한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는 '분교 음악회'를 일구는 모습이다. 지난 2001년 9월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한 '예민의 분교 음악회'는 현재 175회를 넘어섰다.

지난 21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업실에서 그를 만났다. 분교 음악회를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에 그는 "그냥 아이들과 조용히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업실로 방문해달라고 청했다.

분교 음악회는 아이들과 함께 마시는 달콤한 코코아 한잔으로 시작된다. 코코아가 든 컵을 손에 꼭 쥐고 아까워 차마 먹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해 나간다. 오늘 아저씨가 왜 여기에 왔고, 너희들과 어떤 재미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때론 전교생이 딱 한명 뿐이었던 학교, 바닷가 모래사장이 운동장이었던 섬마을 학교 이야기도 들려준다.

노래는 두곡 정도 부르고 대신 아이들이 세계 각국의 악기를 배우고 체험해 보는, 음악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음악회를 진행한다.

아이들은 인디언들이 비를 부르는 데 쓴 레인 스틱, 사람의 뼈로 만든 악기, 파도 소리를 내는 오션 드럼 등 낯선 처음 접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수차례 음악회를 열었던 과정이 바로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자연의 소리를 담은 세계 각국의 악기를 접하며 아이들은 또 다른 '상상의 나라'를 펴고 스스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와 아이들이 이어준 건 지난 1997년 촬영한 한 프로그램이었다. 강원도 평강 입만분교를 찾았던 그는 아이들과 노래하는 모습을 찍고 싶다는 제작진의 요청으로 '아에이오우'를 함께 불렀다.

"음악을 내고 가수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이었지만 고민이 참 많았을 때였어요. 그날 조약돌로 박자를 맞추는 아이들의 모습과 저를 빨아들일 것처럼 바라보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제 노래'가 지금 가장 행복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후 미국 코니시 음대 작곡과에서 공부를 계속했지만 갈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2001년 9월



2001년부터 시작 175회 전국 대장정 아시아 오지 찾아 '작은 음악회'도 계획

부터 '예민의 분교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1년간 122곳을 순례했다. 때론 일주일에 4일씩 이어지는 강행군이었다. 지금은 '찾아가는 공연'이 보편화 되었지만 당시에는 책장수로 오해받는 등 설 외조차 어려웠다. 대장정이 끝난 후 그는 잠시 상실감에 빠졌다.

"노래로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함께 노래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음악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이 컸던 시기였죠. 숨고르기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또 분교음악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하고 싶었구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중국 인도 등을 떠돌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조용히' 분교음악회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음악회 초창기에는 마름, 마술 등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지 위해 여러 사람과 행

사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오롯이 혼자 프로그램을 꾸려나간다. 매 공연마다 무보수로 함께 나서는 4~5명의 스태프들이 큰 힘이 된다.

그가 다녀온 분교는 모두 173곳. 그중 이미 40여 곳이 문을 닫았다. 그는 올해까지 분교 200곳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2011년엔 분교음악회 10주년 행사를 준비중이다.

그는 아시아권으로 분교 음악회를 확대시키는 꿈도 꾸고 있다. 아시아 산골 오지의 학교들 역시 문을 닫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평마을에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작은 음악 캠프를 열기도 했다.

"요즘에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신반부 분이 많아요. 지역이나 대상, 계층과 관계 없이 어디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예민의 분교음악회'. 1고흥 분교 2강원도 품걸 분교 3충북 삼가 분교.

많은데, 문화 프로그램이 향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언어로 남게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예술가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는 얼마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한 아이에게서 메일 한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지금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음악회 이야기를 한다고, 그 때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는데 저의 마음이 아저씨에게 전해지면 좋겠다고, 제 편지가 아저씨에게 희망이 되기를 믿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민의 분교음악회'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1986년 대학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가수 예민(사진)은 최근 8년만에 정규 5집 앨범을 냈다. 가수로서의 마지막 앨범이다. 분교음악회, 인간과 음악에 대한 고민이며 지금까지 자신의 음악과 생각들을 정리해 담았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앨범'이라고 말한다.

'오퍼스'(신나라 레코드)라는 제목으로 출시된 음반에는 '연리지', '해가 지는 풍경' 등 신곡과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등 기존곡을 재편곡한 음악 등 모두 17곡을 담았다.

눈에 띄는 곡은 80이 넘는 김영매 할머니가 부른 '나의 할머니, 그녀의 첫사랑'. '산골 소년'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 한때는 '소녀'였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의 작업실에는 다양한 세계 민속 악기들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 민속음악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지난해부터 역사와 음악교육을 접목시킨 '박물관 음악 학교-뮤뮤스쿨(Museum Music School·www.mumuschool.org)'을 운영중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뮤뮤스쿨'은 음악 인류학, 고고학, 종족 음악학을 근간으로 한 어린이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세계 각국의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악기를 만들어보기도 한다.

"단순히 체험학습이 아닌, 인문학을 접목한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셈이죠."

그가 요즘 또 하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업이 있다. 처음 시도하는 뮤지컬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뮤지컬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그는 작곡가 겸 음악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 여름 LG아트홀 무대에 올릴 '행복한 왕자'는 연극배우 서주희·이영란, 뮤지컬 제작자 김중현(소티 대표)씨 등과 함께 하는 진행되는 작업이다.

"유명한 작품인 '행복한 왕자'는 나에게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뮤지컬을 보고 나서 관객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누는 것'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십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론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건물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남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토지매매
전원주택
임야
기타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빌딩
땅
병원·학원·수파·식당·기타
상가·사무실

대지공인중개사
구합니다.
매각중개대상물
신인동 상업지
중흥동 35㎡대토번
신안동 30㎡대토번 시가리코너
북석동 자연주택 단지
나주 혁신도시 부지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금매 고시원 및 원룸 매매
주유소매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수원지구 상업용지
전원가능한급매물
건물매매
투자기치 최고의 절세형 플랜

한일지도판매(주)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함흥·평안·함흥)
지번도 책 판매중
이전에 제작한 합본책은?
이전에 제작한 합본책은?
이전에 제작한 합본책은?